

오피니언

다산포럼

조영철



외환위기 이후 성장잠재력이 저하되고 양극화가 심화되는 구조적 문제를 겪고 있다.

업의 성장·집중과 비교열위산업의 쇠퇴를 초래하며 그 결과 시장경쟁의 승자·패자가 발생한다.

이에 반해 사회위험을 완충할 경제사회 정책은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즉 외환위기 이후 고용 불안정과 소득·소비 변동성은 크게 증가한 반면, 단기 수익성과 재무 안정성을 강조하는 주주자본주의의 확산으로 한국경제의 위험 분담 능력은 오히려 약화되었다.

그 결과 IMF 구제금융을 조기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기업, 가계, 자영업자 등 개별 경제주체들은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했다고 느끼게 되었다.

투자·소비 활동이 위축되고 한국경제는 침체에 빠져 있다. 더욱이 경제의 유연성과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적응성과 방어 능력이 취약한 서민계층이 타격을 가장 많이 받아 소득분배도 악화되었다.

수 있었지만 민주화 이후에는 이런 식의 배제 전략이 어려워진다.

급진적 시장주의자들은 사회 갈등 문제가 국가가 개입하는 것을 비판하고 시장을 통해서 조정하는 자유방임주의를 강조하지만 19세기의 자유방임주의는 10명의 성인 남자를 중 3~5명 정도만 투표권을 가졌던 시대나 가능했던 일이다.

경제개방으로 촉발된 사회갈등을 조정하는 사회적 책무가 부족하다면 그만큼 구조 조정은 지연되고 경제개방도 어려워진다.

한국경제 제도약화려면

스웨덴, 핀란드, 스위스같은 개방경제일 수록 사회지출 비중이 큰 것도 개방에 따른 사회보험과 조정 필요성 때문이다.

국가가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투자 및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할수록 인적자본의 질이 향상되며 육아와 가사 노동을 지원하는 사회적책은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을 높여 장기 성장잠재력을 강화한다.

유연성은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반면 안정성을 훼손하는 단점을 안고 있다. 그러므로 유연성과 안정성의 조화를 이루는

유연안정성 체제를 노동시장, 금융, 거시 경제와 사회정책 분야 등 경제사회 전반에 확산시킬 수 있는 정책 개혁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에는 잘 기능하는 사회복지서비스가 위험부담 사회자본(risk-taking social capital)을 확충하여 국가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창업 활성화는 고용 문제 해결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선진국 벤처기업가의 성공 사례를 보면 한두 번의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사회복지가 확충되지 못한 우리의 경우 사업에 도전했다가 한

번 실패하면 당장 가족들의 생존이 위협을 받게 되므로 사업에 재도전하기 매우 힘들다. 시장경쟁의 패배자들이 다시 경기에 나서기 힘들다면 독과점과 양극화는 시간이 지남수록 심화될 것이다.

선진국의 경쟁력은 단순히 비용 경쟁력이 아니라 인적자본의 질,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혁신투자 위험을 부담할 수 있는 제도적 능력 등에 크게 의존한다.

아무런 사회보호 장치가 없다면 개인 혼자 힘으로 시장 불확실성을 전부 감당해야 한다면 여성은 출산을 기피하고 젊은 이들은 의사, 공무원, 공기업같은 안정적 직업에만 몰려들고 모험정신과 창의력은 위축되어 경제의 역동적 효율이 둔화될 것이다.

지입금과 비용 삭감같은 수량 경쟁으로 중국이나 인도를 상대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여차피 질로 승부할 수밖에 없다면 사회정책은 도덕적 해이를 확산시키는 소비지출을 꺼리려는 낡은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사회정책은 지원 대상, 인센티브와 전달기구 등 제도적 장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불확실성을 줄이고 위험부담 능력과 기업가정신을 강화하여 한국경제가 제도약하는 발판이 될 수 있다.

(국회 산업예산분석팀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지역중소 80%가 경영난...대책 서둘러라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들이 원자재 값 폭등으로 한계상황에 몰리고 있다.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원자재가 급등으로 채산성이 갈수록 악화돼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해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가 최근 지역 내 179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80%가 원자재가 상승으로 경영상태가 어렵다고 응답했다. 부도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업체도 3.9%에 이르렀다. 특히 71.6%는 전년보다 매출액이 감소하고 25.2%는 종업원을 감축했다. 원자재가 급등이 경영난으로 이어지고 고용 불안이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난 심화는 원자재가 급등으로 생산비가 크게 늘고 있는데 반해 납품단가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의 44.2%가 원자재가 인신분의 납품단가 미반영이 경영난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1년 동안

안 아스팔트, 골재 등의 가격은 28% 올랐으나 아스콘의 납품단가는 단 한푼도 오르지 않았다. 납품단가가 오히려 꺾인 업체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경영난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

지역 중소기업들이 더 이상 한계상황으로 몰리는 것을 방지해서는 안 된다. 지역경제를 이끌어 가는 주체는 중소기업이다. 이들이 어려워지면 지역경제는 침체에서 벗어날 수 없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영난은 서민 생활과 고용 시장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정부·지자체와 대기업은 고통을 중소기업과 분담해야 한다. 형편이 어렵다고 납품 단가를 후려치고 대금 결제를 미루는 지난날의 악습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현실을 감안한 탄력적이고 차별적인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지역 중소기업도 원가 절약 등 뼈를 깎는 자구 노력으로 원자재가 과고를 원인으로 삼았다. 실제로 지난 1년 동안

이번엔 '집단 항의' 인수위 제정신인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또 사고를 쳤다. 인수위 태스크포스(TF)팀장을 비롯한 자원위원 9명과 관계자 등 32명이인 천 강화도의 한 장애집에서 행정기관의 항의를 받은 것이다. 출범을 불과 1주일여 앞둔 새 정부의 도덕성에 치명타가 아닐 수 없다.

인수위의 집단 항의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관계자들은 인천시 고위 공무원과 강화군수 등의 접대를 받으며 술판까지 벌인 뒤 190여만원의 점심식사 비용을 인천시 법인카드도 결제했다. 정권의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해 꾸려진 인수위가 본분을 망각한 채 특권의식을 드러낸 것이다.

인수위의 일탈행위는 이번만이 아니다. 영여철입교육과 유류세 10% 인하 등 의욕만 앞세운 실익은 정적으로 국민의 후생을 초래했다. 한 자원위원이 직위를 이용해 고액의 부동산 투자 상담료를 챙기는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구설이 끊이지 않았다.

인수위의 단일한 대응도 문제가. 인수위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이경숙 위원장 등이 나서 일벌백계를 강조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하면서도 인수위 차원의 일이 아니라 '개인적 돌출행동'이라고 선을 그어 왔다. 인수위가 책임질 사안은 아니라고 변명만 해온 것이다.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다. 이 위원장은 "국민에게 부끄럽고 송구스럽다"며 사과한 뒤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일벌백계로 다스리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허증수 기후변화·에너지지변 TF팀장과 박창호 자원위원의 사표를 즉각 수리했지만 재발 방지 약속이 지켜질지는 의문이다.

이 당선 주변은 성찰해야 한다. 10년만의 정권교체라지만 오만과 독선, 특권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앞날이 어둡을 수밖에 없다. 소말고회·고려대·영남 출신을 중용한 인사 스타일을 놓고 'SKY'나 '고소영' 등의 비아냥이 나오고 있는 현실을 적시하기 바란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시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NGO 칼럼 이 상 욱

유엔 산하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최근 한국정부에 '한국이 단일민족을 강조하는 것은 국제적인 기준으로 볼 때 인종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외국여성이 결과적으로 일부 매매혼의 결과로 낳고 하는 국제결혼 증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국제결혼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에 대해 우려한다. 또 결혼중개업자의 활동을 규제하는 법률 초안을 신속히 제정 외국여성들이 배우자로부터 받는 학대에 대처하기 위한 대응 통로를 제공하고 조치가 취해지는 동안 한국에 머무를 수 있도록 허가할 것'을 권고했다.

국립 다문화패밀리센터 건립 시급하다

한국의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문제가 한국인의 문제가 아님을 사회가 인식해야 한다. 광주다문화가족지원전문가협의회는 다문화 연구기능과 개별 교육과 체험을 통해 한국 사회에 다문화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입안할 국립 다문화패밀리센터 건립에 광주에 세워 줄 것을 건의했다. 광주는 도·농 복합지역으로 다문화를 연구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도시이다. 농촌과 도시 근로자, 소외계층과 재혼 가정 등 지역에 다양한 다문화가정이 늘고 있어 광주 전남의 모든 대학과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 단체들이 다문화를 연구하고 있다. 또한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는 다문화를 지역 현안으로 인식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일한다. 광주 지역에 다문화를 연구하는 대학과 기관들을 집약시키는 CPU(중앙 처리 장치)가 필요하다.



처가살이는 자연의 본능



드라마를 보면 처가살이는 남자들이 나온다. 그런데 처가살이는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우리의 전통생활 풍속 중 하나였다가, 조선시대부터 유교적인 관습에 의해 여자가 시집오는 풍속으로 차츰 바뀌었다고 한다. 남자인 필자의 입장에서 내가 만일 처가살이를 하게 된다면 편한 측면과 불편한 측면이 있으리라 여겨진다. 예전처럼 농사 본위의 사회거나 농촌지역이라면 불편할 것이고, 도시처럼 비노동적인 일이 많은 데라면 더 편안할 것이다. 그래도 지금의 시집살이는 여자들의 처지보다는 훨씬 더 나은 것이라는 예상을 해본다. 사회(무리)를 이루고 사는 동물들의 세계와 비교해 보면 분명 우리의 시집살이는 자연의 본능에 맞지 않다. 모든 동물들은 기본적인 알뜰 무리가 형성돼 있고 그 알뜰 무리 속으로 끊임없이 수컷들이 데릴사이가 되기를 염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한번 불모로 잡히면 그 무리를 보호하고 번성시킬 무거운 책임을 진다. 우리들 눈에는 멋지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사실 그들 지배적인 수컷들의 삶은 항상 경쟁과 위협의 연속이고 결코 안정적인 결혼생활은 바라볼 수가 없다. 힘이 떨어지면 물러나야 하는 게 냉정한 동물사회 데릴사위들의 운명이다.

◇최종욱 광주우치동물원 수의사 hownat@hanmail.net

사찰에 무심코 버리는 쓰레기 문화재 훼손 부를수도

얼마전 아이들을 데리고 산행 겸 협천교 육 삼아 내장사에 갔다. 내장사 경내 여기저기 돌아보며 고향의 체취와 문화유산에 대한 경이감을 맛볼 수 있었다. 경내 여기저기를 함참 돌던중 엄마를 따라온 어린이가 과자 부스러기를 내장사 경내 목조건물 근처에 떨어뜨리는 것을 보았다. 아이를 데리고 다니던 엄마도 그 장면을 목격했다. 엄마가 그것을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릴줄 알았는데 그냥 가버렸다. 그러자 우리 아이가 '어이, 저걸 주워서 버려야지'하면서 발로 밟아 아이를 제지하듯 했다. 순간 내가 깜짝 놀라서 아이를 제지하며 그 과자 부스러기를 주워 휴지에 싸서 가

無等鼓

지난 1997년 말 외환위기가 닥쳤을 당시 한국인들은 '국가신용등급'이라는 낯선 용어에 떨었다. 한국을 '투자 부적격'이라고 낙인찍은 신용평가기관 S &P(스탠더드 앤 푸어스), 무디스(Moody's Investors Service, Inc.) 등의 위세는 무시무시했다. 그들은 한국민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었고 그들의 서술 앞에 온 국민은 좋은 성적표를 받기 위해 고고분분하는 초등 학생처럼, 금 모으기에 동참했다. 무디스의 창업자는 존 무디다. 그는 미국 투자은행인 스코틀랜드 트러스트사의 증권분석사로 일하다 1900년 무디스를 차렸다. '신용에 관한 진실'이라는 저서를 쓸 정도로

사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의 실력을 인정받았다. 수많은 채권이 휴지조각이 될 때 그들의 평가표는 투자자들의 재산을 지키는 든든한 좌표였다. 그들이 우람하다고 찍으면 우람기업이었다. 그때부터 무디스는 1916년에 설립된 또다른 평가기관 S&P(스탠더드 앤 푸어스), 1997년에 설립된 피치IBCAs와 함께 갈라 누구도 거역못하는 삼영으로 100년째 영화를 누리고 있다. 하지만 서브프라임 모기지 파동이 터지면 서 이 위기에 대한 경고를 제때로 하지 못했다며 3개 평가기관의 신용에 대한 시장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미국 정부는 투자자를 오도한 신용평가사에 벌칙을 부과하겠다고 나서는가 하면 일부에선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인들을 골목감에 떨게 했던 그들의 평가가 여러 분야에서 잘못되고 있다는데, 시장의 98%를 씹어먹는 이들의 과장체 때문이다. 고인 물은 씹듯이 경쟁이 없는 곳에 문제가 생긴다. /기현호 경제부장 khnh@kwangju.co.kr

뜻みを 신용평가



Table with publication information for Kwangju Ilbo, including address, phone numbers, and subscription rates.